

# 원효상(元曉像)의 현대적 재현-제석사(帝釋寺)의 탕화를 중심으로\*

최재목\*\* · 손지혜\*\*\* · 김은령\*\*\*\*

## 【 목 차 】

I. 서론	IV. 문헌기록과의 대조와 탕화의 특징-결론을 검하여
II. 제석사와 원효	
III. 원효팔상탱화에 나타난 원효상	

## I. 서론

이 논문은 경상지역 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元曉, 617~686, 이하 원효)의 탄생 사찰로도 회자되는 제석사(帝釋寺)의 원효 팔상탱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효상(元曉像)의 현대적 재현 양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제석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위치하며, 일부에서는 원효의 탄생 사찰로 회자되고 있다. 아울러 불교계 최초로 원효성사전(元曉聖師殿)을 건립하고 원효를 주불로 모시며 매년 원효성사 추모 다례제(음력 5월 4일)를 개최하는 등 원효와의 관련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찰이다.

이 제석사의 원효성사전 내부에는 원효의 탄생에서부터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여덟 폭의 탕화로 묘사한 팔상탱화가 안치되어 있고(2006.05.30점안식), 주련에는 원효의 유명한 오도송이 새겨져 있으며 후벽에도 원효의 깨달음과 관련된 일화들이 묘사되어 있다. 묘사된 그림들은 엄밀한 고증을 거쳐 그려진 것이기 보다는 현재 대중적으로 알려진 원효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택하여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sup>. 그 중에서도 이 논문에서는 주로 팔상탱화의 내용에 주안을 두고 검토하고자 하며, 그 외 원효관련 자료가 될

\* 이 논문은 영남대학교 2010학년도 인문학육성기금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영남대 철학과 교수

\*\*\* 동 대학 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 동 대학 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

1) 논문의 논의 진행을 위하여 2009년 6월, 2010년 8월 16일 등 몇 차례 제석사를 답사하여 팔상탱화와 관련하여 주지인 적연의 조언을 구하였으며 그의 구술 내용을 참고로 하였음.

만한 것들에 관하여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원효와 관련된 진영<sup>2)</sup>은 알려진 바가 많으나 이처럼 원효의 일대기를 팔상탱화로 묘사하여 원효를 주불로 모신 후벽면에 배치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독특함을 찾을 수 있다.

종래 제석사와 원효의 관계를 언급한 저서 및 논문 자료로는 이봉춘의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sup>3)</sup>과 장휘옥의 『자 떠나자 원효성사 찾아서』<sup>4)</sup>등이 있으나, 이 자료들 또한 제석사만을 집중 조명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주제들과 겸하여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며 그 외에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제석사는 원효성사전을 설립하여 원효를 주불로 모시며 탱화를 안

2) 참고로 지금까지 원효 진영의 수집·소장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상현(1993), 「자료해설: 도판해설(圖版解說); 원효진영에 관하여」,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도표로 정리하였음.)

[표 1] 원효진영정리표

도 상	내 용
분황사소장	-원효가 이 절에서 『화엄경소』를 지음. -설총이 조성한 소상 봉인되어 있었음. · 고려 명종때 화재국사비가 세워지기도 함. 지금 옛 우물과 화재국사비대와와 전탑이 남아있음. <현재 법당인 보광전에 원효진영 봉안>
원적사(해동초조원효 조사진영)	-조성년대 불확실함, 19세기정도 제작 추정,비교적古식 -원손에 불자들고, 눈썹 치며올라간 것이 특징
조명기소장 (원효존사법영)	-조선후기 석주사에 주석하던 석옹이 폭57cm,높이97cm의 비단에 제작
일본 고산사	-명혜(1173-1232)제작 『화엄연기』(화엄종조사회전) 6권 원효와 의상진영
국립현대미술관소장 원효표준영정	-1970년대 문화공보부의 위촉으로 이종상화백(서울대 교수)제작
호림박물관 원효조사지진영	-내력알 수 없음-배경에 벽면과 바닥의 구분없음, 장식없는 의자상, 형식은 고식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에 조성 추정.
조사진영수록 원효진영	-본래의 소장처 명기되지 않음. 「해동초조화엄강사원효대화상지진영」이라 씀. -이만용 「원효의 사상」 화보에도 이 진영 수록
원효암	-6.25이후 제작 추정 - 「해동초조원효대화상」이라고 명기
척판암	-『송고승전』척판암설화 내용 -양산 척판암, 묘향산척판대 -양산척판암은 1938년 중수, 봉안된 진영도 1938년 조성
불영사	-이 절의 북쪽에는 원효굴과 의상대 -「원효성사지진」의상진영과 함께 최근 제작 -이전에 전승되던 진영 토대로함
원효사	-광주무등산 ,1980년대 발굴조사, 후에 중수 -1980년대 제작, 전체적 구도는 일본 고산사 소장 원효진영 참고 한 듯
원효종사전소재	-1967원효종 간행 『원효종성전』수록 -분황사 봉안 원효영정과 비슷, 분황사 영정 참고하여 1960년대 그린 듯
전 범어사소재	-원효와 의상 초상 봉안 -장도빈의 『원효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던 것 -지금은 범어사에 전하지 않음
효창공원 원효동상	-1959년 8월16일 애국선열보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 공동 서울 효창 공원에 세운 동상
금수사 원효동상	-고려 원효유법 계승·전명하려는 종파: 분황종 혹은 해동종이라 함 -1960년에 대한불교 원효종이 부산 금수사 중심도량으로 창종 -금수사도량에 원효동상 최근 건립

3) 이봉춘(1996),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 『원효연구』, 원효학연구원.

4) 장휘옥(1996), 『자 떠나자 원효성사 찾아서』, 시공사.

치한 유일한 사찰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이 팔상탱화의 원효 일대기는 현재적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재고의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의 논의 진행을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제석사를 답사하였고 주지와의 대화를 통하여 탕화의 제작 목적·경위, 그리고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탕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지의 의견에 따르면 이 팔상탱화는 원효의 전기에 대한 엄격한 문헌고증을 거쳐 문헌의 내용과 일치하게 표현한 탕화는 아니지만, 원효 관련 설화들의 특징을 집약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하며, 바로 이 점은 원효의 전기를 나름의 시각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제석사와 원효의 관련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인 탕화분석에 있어서는 먼저 첫째, 도상 내용을 해석하고 둘째, 이와 관련된 문헌의 기록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자 한다.

## II. 제석사와 원효

제석사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위치한 영천 조계종 은해사(銀海寺)의 말사로, 현재 일부 사람들에 의해 원효의 탄생사찰로 언급되고 있는 등 원효와의 관련성이 주목되는 곳이다<sup>5)</sup>.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으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지명을 통한 여러 정황과 추측으로 원효의 탄생지로 거론된 바가 있으며,<sup>6)</sup> 현재는 매년 음력 5월 4일 이 사찰에서 ‘원효성사 탄신일 다례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 제석사는 현재 대웅전·칠성각·요사·문간채<sup>7)</sup> 각 1동에 약 400평 가량의 도량을 가진 작은 규모의 사찰이다.

제석사와 원효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삼국유사』권4 「원효불기조」의 원효 탄생지에 관해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효성사 俗姓은 薛氏, 조부는 仍皮公 또는 赤大公이니 지금 赤大淵 옆에 仍皮 公廟가 있다. 父는 談捺乃末이다. 처음에 押梁郡의 南(지금 章山郡임), 佛地村의 북쪽, 粟谷 娑羅樹 아래서 태어났다. 村名 佛地는 혹은 發智村(俗言에 佛等乙村 이라 함)이라고도 하였다. 娑羅澗란, 俗에 이

5) 제석사 및 원효 탄생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료로는 <①이봉춘(1996),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 『원효연구』, 원효학연구원. ②李鍾大(1991), 「元曉大師出生地와 대사가 창건한 金堂寺」, 『慈仁의脈』, 자인. ③金鍾國(1993),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 원효」, 경산문화원. ④조춘호(1998), 『원효불기조의 현장론적 연구』, 『구비문학연구』제6집, 한국구비문학.>가 참고할 만하다.

6) 원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암(寺菴)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원효의 명(名)을 붙인 절(寺)이 18곳, 그 외에 원효의 행적과 관련된 사암이 50여 곳으로 전국에 68곳의 사암이 있다고 한다.(김영태(1980), 「전기와 설화를 통해 본 원효연구」, 『불교학보』제17집,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pp.34-37 참고.) 그러나 이 사암들이 원효의 이름을 붙이고 있거나 원효와의 관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설화와의 관련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7) 대웅전은 1962년 칠성각은 1965년 준공하였음.

르되 師의 집이 본래 이골 西南에 있었는데 母가 滿期가 되어 이 골 밤나무 밑을 지나다가 解産하였다. 몹시 급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남편의 옷을 나무에 걸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로 인하여 이 나무를 娑羅樹라고 하였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이상하여 지금도 娑羅栗이라 일컫는다. 古博에 옛적에 절을 주관하는 이가 寺奴 一人에게 저녁끼니로 밤 두 개씩을 주었다. 寺비가 官에 호소하였더니 관리가 괴이하게 여겨 그 밤을 가져다가 검사하니 한 개가 한 鉢盂에 가득 차므로, 도리어 한 개씩만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栗谷이라고 하였다 한다. 師가 출가하여 그 집을 희사하여 절을 삼고 初開라 이름하였다. 또 나무 곁에 절을 세워 娑羅寺라고 하였다. …(中略)…佛地村은 지금 慈仁懸에 속하니 곧 押梁郡內의 分開된 곳이다. 師의 兒名은 幢幢이요 第名은 新幢이다.(幢의 俗에 毛라고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원효는 본인이 태어난 곳과 살던 집을 직접 지었다고 하며, 전자를 사라사(娑羅寺)·후자를 초개사(初開寺)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봉춘은 그의 논문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삼국유사』의 기록과 현재 경산지역의 지명의 추정을 바탕으로 제석사가 원효의 탄생지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삼국유사』의 ‘원효는 울곡 한 나무 아래서 탄생하였고, 때문에 사라수라고 부르게 된 이 나무 옆에 절을 세워 사라사라 하였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울곡의 위치를 추적하였다. 울곡은 경산시 자인면에서 밤골·밤밭골로 불리는 북서 1리 지역으로, 이 옛 밤골 지역에 현재 제석사가 있음에 주목하였다<sup>8)</sup>.

이 제석사는 밤골 뒤의 도천산(到天山) 부근에서 1933년에 예전에 절터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으며, 본래 제석암에서 제석사로 명칭 또한 변경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예전의 도천산 부근의 제석사와 현재 위치의 제석사로의 이전과 관하여 한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에 의하면, 조선 인조 3년(1625) 유찬이 창건하여 순조 2년(1802) 처사 손대권이 중창하였고, 순종 4년(1910)에 월파(月波)가 3창하고 1933년에 만호(萬湖)가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9)</sup> 즉 이 기록은 현재 대경전문대학의 뒷산인 도천산에 있는 절터(=제석암)를 말하는 것이며, 현재의 제석사는 이 도천산 절터로부터 1930년대에 옮겨온 것이라고 구전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그 외 주목되는 것은 제석사에서 출토된 유물로, 현재 제석사의 주지(적연)의 말에 따르면, 1977년 경 현 칠성각 옆 담장 공사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60cm의 땅 속에서 금동관음입상(金銅觀音立像)이 출토되었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지금은 그 유물의 행방을 알 수

8) 이봉춘(1996),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 『원효연구』, 원효학연구원, pp.131-134 참고.

9) 권상로(1979), 『한국사찰전서』 하, 동국대학교출판부, 1021면. “帝釋寺 在慶尙北道慶山郡慈仁面到天山 大木山桐華寺末寺. 太古寺寺法. ○按或作帝釋庵○朝鮮仁祖三年(乙亥)惟贊化主初創 純祖二年(壬戌)處士孫大權重創 純宗隆熙四年(庚戌) 月波大師三創. 隆熙紀元後二十三年(癸酉)萬湖大師重修”.

10) 한 고노(高老)의 증언에 따르면, 제석사로부터 대략 31km 남짓 떨어져 있는 그곳 도천산 일대에는 제석암 외에도 몇몇 절터들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도천산 제석암이 물이 좋지 않아 새로운 절터를 물색하다가 1920년대에 현재의 제석사 자리로 옮겨지었고 寺名도 그때 제석암에서 寺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당시 절터를 물색할 때 현 재의 제석사 위치에서 불상과 와당 조각 등이 출토되었고, 이 자리가 원래 절이 있던 옛 절터임을 알고 이곳으로 도천산에 있던 법당 등을 이 건했다 한다. (이봉춘(1996),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 『원효연구』, 원효학연구원, p.135.)

없다고 하여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제석사에는 제석암(=도천산 절터 제석암) 창건 당시에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좌불과 부서진 탑, 석등과 연화대석 등이 보존되어 있다. 이 석불상은 코 부분이 심하게 마멸되어 있는 등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10여 년 전에 백토를 칠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혀 현재 대웅전에 봉안했다고 한다. 이 불상은 광배의 문양 등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약사여래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불상의 좌대석 및 연 대석은 부분적으로 파손되기는 했지만 연꽃무늬가 양각된, 역시 6-7세기경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토물들은 대략 신라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석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며, 이 논문에서는 이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원효의 팔상탱화 및 후벽화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제석사의 배치를 살펴보면, 먼저 서편에 칠성각, 중간에 법당(대웅전)이 있고, 동편에 바로 원효성사전이 있다. 팔상탱화는 바로 이 원효성사전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후벽에도 원효 일대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주련에는 원효의 유명한 오도송이 새겨져 있다<sup>12)</sup>.

2000년 이후 주지를 맡은 효원 적연이 대웅전을 중창불사하고 원효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원효성사전을 증건하여 2006년에는 원효팔상탱화를 봉안하였다. <원효팔상탱화>는 바로 이 원효성사전에 배치된 불상의 후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여덟 폭으로 구성된 탕화는 원효의 일대기를 도상화한 것이다.

[사진1] 원효성사전내부



[사진2] 원효성사전외부



11) 1977년 제석사의 바로 옆집 주민 (故)김수곤이 절과 집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 담장을 세울 때 현재의 칠성각 서편에서 굴토작업을 하던 중 60cm정도의 땅 속에서 많은 기와조각들과 함께 금불입상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목격자 이상수(남 53세, 작업인부), 이복순(여 78세, 제석사 신도회장)씨 제석사 옆집에 거주하는 박옥구(여, 61세)등의 증언에 의하면, 높이가 20cm정도의 관음금불입상으로 흙이 거의 없는 원형 그대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금불입상은 그 뒤로 감정을 받고자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봉춘(1996),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 『원효연구』, 원효학연구원.>의 내용과 제석사 주지 적연의 구술을 참고로 하였음.)

12) “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又 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胡用別心.”

[사진3] 원효성사탄생유허비



[사진4] 제석사 현판



아래는 [사진 5] 원효성사전의 후벽에 그려진 원효관련 설화의 장면들이다.

[사진5] 원효성사전 후벽 도상

<해골물 오도>



<오어사 해공과 원효>



<금강삼매경론 저술>



### Ⅲ. 원효팔상탱화에 나타난 원효상

일반적으로 불가(佛家)에서 팔상도(八相圖)라고 하면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각 시기의 극적인 경험을 그린 불화(佛畵)를 의미한다. 이 팔상도는 사찰의 팔상전이나 영산전(靈山殿)에 봉안하며 팔상경(八相幀)·팔상성도라고도 일컫는다<sup>13)</sup>.

13) 옛날 불화 중 현존하는 팔상도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경기도 용문사와 경북 예천의 용문사, 승주 송광사, 하동 쌍계사 등에는 18세기 초의 팔상도가 보존되어 있다. 부처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사문에 나가 세상을 보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성을 넘어 출가하는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설산에서 수도하는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녹야원에서 첫 설교를 하는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의 8장면인데, 8쪽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 쪽에 2개씩 묶기도 한다.

한편 이와 유사한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심우도(尋牛圖) 또한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동자(童子)나 스님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서 묘사한 불교의 선종화(禪宗畫)이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부처(=석가)의 팔상도를 접하거나 심우도를 쉽게 볼 수 있으나, 이 장에서 다루고자하는 여덟 폭의 탱화는 제석사에 소장된 원효라는 특정 인물의 생애와 구도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도(圖)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도상1] 원효팔상탱화



원효팔상탱화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크게 먼저 <탄생>:밤나무 아래에서 원효가 태어나는 모습, <출가>:16세 전후로 출가·삭발하고 승려가 되는 모습, <득도>:30대의상과 중국에 가서 불법을 공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요동에서 억류되었다가 돌아오는 모습과, 다시 중국으로 가던 중 널리 알려진 토감우숙(土龕寓宿)의 득도를 겪는 모습, <요석과의 인연>:요석궁에 홀로 살던 과공주와 만나는 모습 <설법>:『금강삼매경론』을 짓고 대중에게 설법하는 모습, <교화>:원효의 기이한 교화의 일화 중의 하나인 척관구중설화의 내용, <열반>:마지막 만년에 원효가 저술에 몰두하여 『화엄경소(華嚴經疏)』·『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등을 저술하는 모습과 열반에 이르기 까지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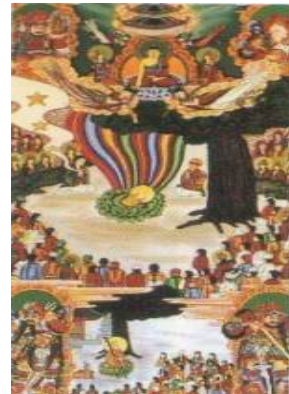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인 탱화 분석에 있어서는 1)도상의 내용을 해석하고 2)이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자 한다.

## 1. 【탄생】

### 1) 도상해석

이 탱화는 <원효의 탄생(617)>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탱화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반부에는 도솔천의 장면·중반부에는 큰 나무 아래로 오색의 구름이 덮히고 여인의 품으로 유성(流星)이 안겨 들어오는 원효 탄생설화의 장면으로 좌측에는 한 여자가, 우측에는 한 남자가 합창한 채 아기를 향해 앉아 있다.·하반부에는 원효의 대종교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즉 탄생장면의 상하로는 과거세 미래세의 원효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 2) 문헌기록

이 탕화의 핵심 내용인 중반부에 있는 <원효 탄생설화 내용>을 중심으로 문헌의 기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되는 문헌으로는 『삼국유사』·『송고승전』이 있고, 비문(碑文)으로는 「서당화상비」가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해 원효 탄생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삼국유사』 처음에 어머니의 꿈에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더니 이내 태기가 있었다. 해산하려 할 때는 오색구름이 땅을 덮었다.<sup>14)</sup>

(b)『송고승전』 스님 원효의 성은 설씨이고, 동해 상주의 사람이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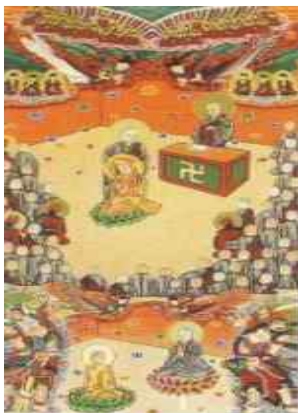
(c)「서당화상비」 어머니가 처음에 별이 떨어져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문득 임신하였다. 달이 차기를 기다려 해산하려 할 때 갑자기 오색구름이 특별히 어머니의 거처를 덮었다.<sup>16)</sup>

이처럼 『삼국유사』와 「서당화상비」에는 원효의 어머니 꿈에 유성(별)이 떨어져 품속으로 떨어졌다는 기록과, 해산 무렵에는 오색구름이 어머니의 거처를 덮었다는 유사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었다.

위 탕화의 내용 또한 이 기록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다만 어머니가 아닌 갓 탄생한 아기 원효에게 오색구름이 내려 덮고 있는 부분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좌측으로 유성이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출가】

### 1) 도상해석



이 탕화는 원효의 <출가와 수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탕화를 살펴보면 상단부에 원효가 출가하여 많은 승려들에 둘러싸인 채 한 승려의 도움에 의해 삭발의식을 갖는 장면으로 뒤편에는 또 다른 한 승려가 탁자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원효가 한 승려와(=스승)과 문답하며 수학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문헌기록

원효의 출가·수학과 관련하여서는 (1)출가시기 (2)사제관계라

14) 初母夢有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三國遺事』「元曉不羈條」)

15) 釋元曉 姓薛氏 東海湘州人也。(『宋高僧傳』「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16) 母初得夢星流星入 懷便■有■待其月開大解之時忽有五色雲■特覆母居。(「誓幢和上碑」)(■표시는 결자입.)

는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효의 <출가>와 관련한 기록은 아래 『송고승전』과 『삼국유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삼국유사』 법사가 출가를 하고서 그 집을 내놓아 초개사라 이름 짓고, 나무 옆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사라사라 하였다.<sup>17)</sup>

(b)『송고승전』 나이(원효) 관채지년(15-16세)에 혼쾌히 불법에 입문하여 스승을 따라 학업을 받았는데, 다니는 곳이 일정함이 없으며, 의혜의 세계를 용맹이 격파하고 문장의 진영을 씩씩하게 횡행하여 굳세고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물러남이 없었다.<sup>18)</sup>

원효의 출가에 대하여 『송고승전』에는 ‘관채지년에 불법에 입문’하였다고 기록되어, 즉 원효의 출가 시기는 15전후에서 20세까지로 추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sup>19)</sup>

한편 원효의 수학과 관련하여 <사제관계>에 대한 기록은 「서당화상비」·『삼국유사』·『송고승전』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삼국유사』와 「서당화상비」에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여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다”고 하며, 『송고승전』에는 “스승을 따라 배우되 일정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c)「서당화상비」 도(道)는 실로 나면서부터 알았다. 마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깨달았으며 배움에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sup>20)</sup>

(d)『삼국유사』 그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특이하여 스승을 좇지 않고 (혼자)배웠는데, 그가 사방을 떠돌던 시말(始末)과 성대하게 편 포교의 자취들은 모두 『당전(唐傳O)』과 그의 행장에 실려 있다.<sup>21)</sup>

(e)『송고승전』 혼쾌히 불법에 입문하여 스승을 따라 배우되 일정하지 않았다.<sup>22)</sup>

그러나 『삼국유사』와 『송고승전』에 혜공·낭지·보덕·대안과 같은 고승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효에게도 학문과 법을 묻고 가르침을 얻은 스승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7) 師出家, 捨其宅爲寺, 名初開, 樹之旁置寺, 曰娑羅. (『三國遺事』「元曉不羈條」)

18) 非采之年, 惠然入法, 隨師稟業, 遊處無恆. 勇擊義圍, 雄橫文陣, 乞佗然, 進無前却, 蓋三學之流通, 波士謂之萬人之敵, 精義人神, 爲苦此也. (『宋高僧傳』「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19) 『송고승전』의 非髮之年惠然入法の ‘관채지년’의 해석에 주목하여 원효의 출가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이며, 非髮之年은 쌍으로 머리를 틀어 올려 묶는 나이나 쌍투를 트는 나이 정도로 이해되어왔다. 당시 신라사회의 ‘보관’은 관례의식을 시작할 시기에 있는 소년을 뜻하며, 이 의식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15세 전후 유년기에 원효가 출가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20) 大師德惟宿植道貫生■薩心自悟學■從師. (「誓幢和上碑」)

21) 生而穎異. 學不從師 其遊方始末, 弘通茂跡, 具載唐傳與行狀. (『三國遺事』「元曉不羈條」)

22) 惠然入法, 隨師稟業遊處無恆. (『宋高僧傳』「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f)『삼국유사』 이때 원효는 여러 불경의소(疏)를 지으면서 항상 해공을 찾아가 의심나는 것을 물었는데, 가끔씩 서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였다.<sup>23)</sup>

(g)『삼국유사』 원효가 반고사에<sup>24)</sup> 머물 때 언제나 낭지스님을 찾아뵈었다. 낭지는 원효에게『초장관문』<sup>25)</sup>과『안신사심론』<sup>26)</sup>을 짓게 했다. 원효가 짓기를 마치자 숨은 선비 문선으로 하여금 낭지에게 글을 올리게 하였는데 그 글의 끝에 노래를 지었다. “서쪽 골짜기의 사미(원효)는 동쪽 봉우리의 상덕인 높은 바위 앞에 머리 숙여 예합니다. 미세한 먼지를 불어 영취산에 보태고 작은 물방울을 날려 용연(태화강)에 던집니다.<sup>27)</sup>

(h)『삼국유사』 원효는 의상과 함께 보덕성사로부터 열반경(涅槃經)과 유마경(維摩經)을 배웠다.<sup>28)</sup>

(i)『송고승전』 「대안화상」 용왕이 말했다. “대안성자에게 차례를 가려서 여게 한 뒤, 원효 법사에게 청해서 소(풀이 글)를 지어 그것을 강의하면 부인의 병은 나아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중략)…대안이 말했다. “빨리 원효에게 부탁해서 강의하게 하시오. 다른 사람은 곧 안 됩니다(못합니다).” 원효가 이 경을 받을 때는, 바로 본디 태어난 상주에 있었다. (원효가) 사자에게 일러 말했다. “이경은 본각과 시각, 2가지 깨침을 주된 뜻으로 합니다. 나를 위해 소 수레(각승)를 마련해 주시오. 장차 소 두 쌍 사이에 책상을 놓으려 합니다.”그기에 붓과 벼루를 놓고서 처음 부처 끝까지 소 수레에서 풀이 글(소) 5권을 지었다.<sup>29)</sup>

이 탕화에는 위와 같은 문헌 기록상의 원효의 출가와 수학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원효의 출가 후 삭발장면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 3. 【득도】

#### 1) 도상 해석

이 탕화는 원효의 <입당과 득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탕화의 상단부에는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으로 유학을 떠나던 과정 중에 요동에서 간첩으

23) 時元曉撰經疏，每就師質疑，或相調戲。(『三國遺事』 「二惠同塵」)

24) 원효가 주석했던 곳으로 『삼국유사』 「낭지승운」조에 이름이 나온다. 반고사·반구사라고도 하며 영조 때 활산(活山) 남용만(南龍萬, 1709-1784)의 『활산집(活山集)』에는 ‘반구사(盤龜寺)’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 북쪽으로,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두동면 천전리(川前里)에 속한다. 이 절터에 대해서는 『읍지』(1919)에 “고을(언양) 동쪽 18리되는 반구산(盤龜山)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5) 삼론(三論)학에서 입문을 기초로 삼는 초장(初章)을 관하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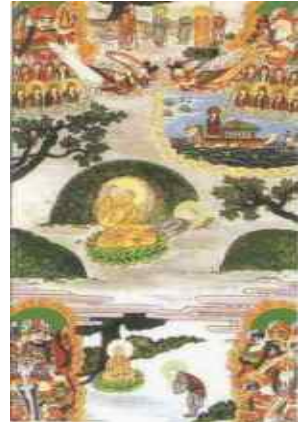
26) 몸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부리는 일(事)에 대한 원효의 입론.

27) 元曉住磻高寺時，常往朗智，令著初章觀文及安身事心論。曉選？，使隱士文善，奉書馳達，其篇尾 述偈云 “西谷沙彌稽首禮，東岳上德高巖前 “磻高在靈 鷲之西北，故西谷沙彌。乃自謂也。(『三國遺事』 「朗智乘雲 普賢樹」)

28) 涅槃方等教傳授自五師兩聖橫經日(元曉義湘嘗在講下親?涅槃摩等經)。(『大覺國師文集』 「孤大山 景福寺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

29) 龍王言，“可令大安聖者，銓次綴縫，請元曉法師，造疏講釋之，夫人疾愈無疑…(중략)…安曰，“速將付元曉講，餘人則否”。曉受斯經，正在本生湘州也。謂使人曰，“此經以本始二覺爲宗。爲我備角乘，將案几在兩角之間，置其筆硯。”始終於牛車造疏，成五卷。(『宋高僧傳』 「大安和尚」)

로 몰려 신라로 다시 귀국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중단부에는 일반적으로 원효의 오도설화로 운색되어 ‘토감우숙’으로 유명한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하였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하단부에는 원효에게 설법을 청하는 승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sup>30)</sup>.



이 탱화의 내용과 관련된 기록을 ①입당과 ②득도의 두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 2) 문헌 기록

원효의 <입당 유학>의 경위와 <득도>와 관련하여 다음 문헌 기록을 참고하고자 한다.

### (1) 입당 관련 기록

(a)『삼국유사』 「의상전교」 “법사 의상의 아버지는 한신이고 김씨이다. 나이 29세에 서울 황복사에 몸을 맡겨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마침내 원효와 함께 길을 나서 요동 변방으로 가던 길에 국경을 지키는 군사에게 첩자로 의심받아 갇힌지 수십일 만에 겨우 풀려나 죽음을 면하고 돌아왔다(이일은 최치원이 지은 의상의 본전과 원효법사의 행장 등에 적혀 있다) 영휘 원년(650)에 마침 귀국하는 당나라 사신의 배가 있어 그것을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sup>31)</sup>”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상전을 살펴보면 이렇하다. 영휘 초년(650)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지엄선사를 뵈었다. 그러나 부석사 본비에 의하면 이렇다. 의상은 무덕 8년(625)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하였다. 영휘 원년 경술년(650)에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들어가고자 하여 고구려에 이르렀으나 어려움이 있자 되돌아 왔다.<sup>32)</sup>

(b)『송고승전』 “일찍이 의상법사와 함께, 현장삼장과 자은의 문하를 흠모하여 당나라에 들어가려 했으나, 그 인연이 차질이 생겨서 갈 생각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sup>33)</sup>”

### (2) 오도 관련 기록

(c)『송고승전』 “나이 스물이 되어서 당나라에 교종(敎宗)이 술 같이 번성함을 듣고 원효대사와 뜻을 같이해 서쪽으로 나아갔다. 당나라로 가는 바닷가로 가서 큰 배를 구해 타고 바다를 건널 생각이었다. 갑자기 중도에서 장마비를 만났다. 하는 수 없이 길가 토감에 몸을 숨겼다. 덕분

30) 이 예로는 광덕과 엄장에게 쟁관법(靜觀法)을 만들어 가르쳤다는 설화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1) 法師義湘. 考曰韓信金氏. 年二十九依京師皇福寺落髮. 未幾西圖觀化. 遂與元曉道出遼東. 邊戍邏之爲諜者. 囚閉者累旬. 僅免而還(事在崔候本傳及曉師行狀等) 永徽初. 會唐使舡有西還者. 寓載入中國. (『三國遺事』 「義湘傳教」)  
 32) 按此錄義湘傳云. 永徽初. 入唐謁智儼. 然據浮石本碑. 湘武德八年生. 卅歲出家. 永徽元年庚戌. 與元曉同伴欲西入. 至高麗有難而迴.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  
 33) 嘗與湘法師入唐慕?三藏慈恩之門 厥緣既差息心遊往. (『宋高僧傳』 「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에 비바람을 피 할 수 있었다. 아침에 날이 밝아 서로 둘러보니 옛 무덤의 해골 방이었다. 날은 더욱 굳고 땅은 더욱 질척했다.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워 토감에 계속 머물렀다. 밤중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득 귀신들이 괴이한 짓을 했다. 그러자 원효는 탄식해 말했다. “지난 밤 무엇을 때는 토감이 곧 편안하다고 했더니 오늘밤에 묶으려니 귀신의 집이라 빌미가 많구나. 아하, 알겠도다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토굴과 무덤이 돌이 아닌것을 또,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만가지 법은 오직 가리새뿐임을, 마음마갈에 법이 없는데 무엇을 별도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의상 혼자 외로이 죽음을 감수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총장 2년(669)에 상선을 타고 등주 해안에 이르렀다.<sup>34)</sup>

(d)『임간록(林間錄)』(卷上) “당나라 중 원효는 신라(해동)사람이다. 처음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와서 도가 있는 명산(도명산)을 찾으려했다. 홀로 황량한 언덕을 가다가 밤에 무덤가에 자게 되었다. 아주 목이 말라 손을 뻗어 물을 찾았더니, 무덤 속에 달고 시원한 샘이 있었다. 날이 밝아서 그것을 보니 해골이었다. 크게 구역질이 나 모두 토해버렸다. 문득 깊이 깨치며 탄식했다. 마음이 생기면 곧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곧 해골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여래대사가 3세계는 오직 마음뿐이라고 했는데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드디어 다시 스승을 찾지 않고 그 날로 신라도 돌아갔다.<sup>35)</sup>”

#### 4. 【무애】

##### 1) 도상 해석



이 탕화에는 원효의 무애사상의 예술적 구현이라 할 수 있는 <무애무>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

상단부에는 원효가 입당을 포기하고 돌아와 저술에 몰두하는 모습이, 그리고 하단부에는 대중들에게 설법과 교화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중단부에는 원효의 무애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자거리에서의 무애무의 연행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원효는 한 손에는 목탁을 쥐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으며 허리에는 조롱박을 찬 채 춤을 추는 형상을 하고 있다. 둘러싼 대

34) 年臨弱冠聞唐土教宗鼎盛. 與元曉法師同志西遊. 行至本國海門唐州界. 計求巨艦. 將越滄波. 倏於中塗遭其苦雨. 遂依道旁土龕間隱身. 所以避飄濕焉. 迨乎明旦相視. 乃古墳骸骨旁也. 天猶震霖地且泥塗. 尺寸難前逗留不進. 又寄埏埴之中. 夜之未央俄有鬼物爲怪. 曉公歎曰. “前之寓宿謂土龕而且安. 此夜留宵託鬼鄉而多崇. 則知 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又 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胡用別心. 我不入唐.” 卻攜囊返國. 湘乃隻影孤征誓死無退. 以總章二年附商船達登州岸. (『宋高僧傳』 「唐新羅國義湘傳」)

35) 唐僧元曉者 海東人 初航海而至 將訪道名山 獨行荒陂 夜宿塚間 渴甚引手掬水 于穴中得泉甘涼 黎明時之嚮體也 大惡之盡欲嘔去 忽猛省嘆曰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嚮體不二如來大師曰 三界 唯心豈欺我哉 遂不復求師 卽日還海東 疏華嚴經大弘圓頓之教 予讀其傳至此追念 晉樂廣酒盃蛇 影之事 作偈曰 夜塚嚮體元是水 客盃弓影竟非蛇 箇中無地容生滅 笑把遺編篆纒斜. (『林間錄』)

중들에게 춤과 노래 등의 예술적인 표현으로 설법을 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 2) 문헌의 기록

원효의 무애무에 관련되는 내용은 『파한집(破閑集)』·『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36)</sup>.

(a) 『파한집』 예전에 원효대성이 천한 사람들 속에 섞이어 놀았다. 일찍이 목 굽은 호로박을 어루만지며 저자에서 가무(歌舞)하고 이를 무애(無導)라 하였다. 이런 일이 있던 뒤에 일 좋아하는 자(好事家)가 금방울을 위에 매달고 채색비단을 밑에 드리워 장식하여 두드리며 진퇴하니 모두 음절(音節)에 맞았다. 이에 불경에 있는 계송을 따서 무애가(無導歌)라 하니 맡가는 늙은 이도 이를 모방하여 유희(遊戯)로 삼았다.

무애지국사(無導智國師)가 일찍이 제(題)하여 이르기를, “이 물건은 오래도록 무용(無用)을 가지고 사용(使用)하였고 옛 사람은 도리어 불명(不名)으로써 이름이 났도다.” 하였다. 근래 산인(山人) 게휴(貫休)가 게(偈)를 지어 이르기를, “쌍(雙)소매를 휘두르는 것은 이장(二障)을 끊은 까닭이요, 세 번 다리를 드는 것은 삼계(三界)를 초월한 까닭이다.” 하였으니 모두 진리(眞理)로써 이를 비유하였다. 나도 또한 그 춤을 보고 찬(讚)을 지으니 그 찬에 이르되, “배는 가을 매미 마냥 비었고 목은 여름 자라처럼 꼬부라졌도다. 그 굽힌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요 허(虛)한 것은 물건을 용납할 만하다. 밀석(密石)에 막히는 것을 볼 수 없고 구호(葵壺)에 비웃음 받지 않도다. 한상(韓湘)은 이와 같이 세계에 숨었고 장자(莊子)는 이와 같이 강호(江湖)에 다녔도다. 누가 이 이름을 지었는고, 그는 소성거사(小性居士)요. 누가 찬을 지었는고, 농서(隴西)의 타이(駝李)로다” 하였다.<sup>37)</sup>

(b) 『삼국유사』 「원효불기조」 “원효가 이미 실계(失戒)하여 설총(薛聰)을 낳은 이후로는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 하였다. 우연히 어떤 광대가 큰 바가지를 가지고 출추고 희롱하는 것을 보니 그 형상이 너무도 빼어나고 기발하였다.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華嚴經)』의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一切無導人, 一道出生死)’라는 (문구에서 따서) 이름을 ‘무애(無導)’라고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친촌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고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南無)를 칭하게 되었으니

36) 무애무 관련문헌 가운데 편찬연대가 가장 앞선 것은 고려시대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파한집』이다. 그 뒤를 잇는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 『화엄경』의 “一切無導人, 一道出生死”에서 무애무의 명칭인 ‘무애(無導)’가 유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파한집』과 『삼국유사』의 내용이 신라 당시 원효의 무애무의 형성배경과 기원을 보여준다면, 『고려사(高麗史)』 「악지(樂誌)」·『세종실록(世宗實錄)』·『의궤(儀軌)』·『정재무도홀기(呈才舞蹈笏記)』와 같은 조선시대 이후 편찬된 문헌은 주로 무애무의 궁중유입 이후 정재로 연행된 사례를 기록하였다. (손지혜(2009), 『원효 무애사상의 예술적 구현-무애무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34.)

37) 以爲飾,拊擊進退皆中音節.乃摘取經論偈頌,號曰無導歌.至於田翁亦效之以爲戲. 無導智國嘗題云, 此物久將無用用, 昔人還以不名名. 近有山人貫休作偈云, 揮雙袖所以斷二障, 三舉足所以越三界, 皆以眞理比之. 僕亦見其舞作讚. 腹若秋蟬, 頸如夏鼈, 其曲可以從人, 其虛可以容“昔元曉大聖, 混迹屠沽中, 嘗撫玩曲項胡蘆, 歌舞於市, 名之曰無導. 是後好事者, 綴金鈴於上, 垂彩帛於下物, 不見室於密石. 勿見笑於葵壺, 韓湘以之藏世界, 莊叟以之泛江湖, 孰爲之名小性居士, 孰爲之讚隴西駝李.”(『破閑集』)

원효의 범화가 컸던 것이다.<sup>38)</sup>”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애무의 명칭인 ‘무애(無導)’의 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 『과한집』과 『삼국유사』가 있으며, 이는 무애무의 기원과 형성배경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이다. 비록 무애무의 구체적인 연행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하여 원효의 대중교화 의도와 무애무의 창안 계기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탱화의 무애무는 위 문헌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약간의 윤색을 곁하여(무구: 염주, 조롱박, 목탁·관객과의 구도 등)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 5. 【설법】

### 1) 도상 해석



이 탱화는 원효의 <설법>에 대한 내용을 묘사한 것이다.

상단부에는 원효가 소의 두 뿔에 붓과 벼루를 놓고 『금강삼매경소』를 지었다고 하는 설화를 표현한 것이며, 하단부에는 김유신(金庾信)이 당(唐) 소정방이 보낸 암호 난독회(鸞牘繪)에 대해 원효에게 자문하였다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 2) 문헌기록

원효의 설법에 관하여 기록한 문헌으로 『삼국유사』·『송고승전』이 있으며, 먼저 상단부에 묘사된 『금강삼매경소』 저술경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삼국유사』 바다용의 권유로 길가에서 조서를 받들고 『삼매경소(三昧經疏)』를 지었는데, 붓과 벼루를 소의 두 뿔 사이에 놓았으므로 각승(角乘)이라고도 하였다.<sup>39)</sup>

(b) 『송고승전』 원효가 사신에게 말하기를 ‘이 경은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의 두 가지 깨달음을 중지로 삼고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하여 책상을 두 뿔 사이에 두고 붓과 벼루를 주시오’ 하고 시종 소가 끄는 수레에서 주서[疏]를 지어 다섯 권을 만들었다.<sup>40)</sup>

한편, 김유신이 원효에게 암호해독의 군사자문을 하였다는 것은 『삼국유사』권1에 기록되었

38) 曉既失戒生聰，己後易俗服，自號小姓居士，偶得優人舞弄大瓠，基狀瑰奇，因其形製爲道具，以華嚴經“一切無礙人一道出生死命”名曰無礙，仍作歌流于世，嘗持此，千村萬落且歌且舞，化詠而歸，使桑樞瓮牖覆猴之輩，皆識佛陀之號，咸作南無之稱，曉之化大矣哉。(『三國遺事』「元曉不羈條」)

39) 亦因海龍之誘，承詔於路上，撰三昧經疏，置筆硯於牛之兩角工，因謂之角乘。(『三國遺事』)

40) 謂使人曰，“此經以本始二覺爲宗，爲我備角乘，將案几在兩角之間，置其筆硯。”始終於牛車造疏，成五卷。(『宋高僧傳』)

다.

661년 12월 김유신이 고구려 출정시에 원효의 조언을 구하여 소정방이 보낸 암호를 풀어 신라 병사들을 구출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c)또한 고기에 이르기를 총장 원년(668년)에 신라에서 청병을 한 당군이 평양의 교외에 주둔을 하면서 서신을 보내어 급히 군수물자를 보내달라고 했다.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기를 “적국에 들어가서 당병이 주둔하여 있는 곳으로 가기에는 지세가 험하여 극히 위험하다. 그러나 당나라 군사의 식량이 떨어졌는데도 군량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하였다. 김유신이 아뢰었다. “신 등이 능히 군수물자를 수송하겠으니 청컨대 대왕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에 유신과 인문 등은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국경 안으로 들어가 군량 2만곡을 수송하여 주고 돌아오니 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또한 군사를 일으켜 당군과 협세를 하고자 웃니이 먼저 연기, 병천 등 두 사람을 보내 협세할 기일을 묻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난새(鸞)와 송아지를 그려 보내 주었다.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 사람을 시켜 원효에게 칭해 물으니, 해석하여 말하기를 “군사를 속히 돌이키라는 말이다. 난새와 송아지를 그린 것은 두 반절(反切)을 이룬 것이다.” 이에 유신은 군사를 돌이켜 패수를 건너려 할 적에 군령으로 말하기를 “나중에 강을 건너는 자는 베리라.”하였다. 군사들의 반이 강을 건너갈 적에 고구려 군사가 와서 미처 건너지 못한 병사들을 죽였다. 다음날 유신은 고구려 병사들을 추격하여 수만 명을 죽였다.<sup>41)</sup>

## 6. 【요석과의 인연】

### 1) 도상해석

이 탱화는 <원효와 요석(瑤石)의 만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탱화의 상단부에는 원효가 두 하녀들에 의해 문천교를 건너 요석궁으로 안내를 받고 있는 내용이며, 중단부에는 요석궁에 들어와 공주와 만나 만찬을 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원효가 궁을 나와 요석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모습(이별)을 나타내고 있다.

요석과 원효의 관계와 원효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문헌기록

원효의 과거행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요석과의 만남에 대한 문헌기록은 『삼국유사』를 통해

41) 又古記云 總章元年戊辰又欲興師會唐兵 庾信先遣然起兵川等二人 問其會期 唐帥蘇定方 紙畫鸞犢二物 廻之 國人未解其意 使問於元曉法師 解之曰 速還其兵 謂畫犢畫鸞二切也 於時庾信廻軍 欲渡沮江 令曰後渡者斬之 軍士爭先半渡 句麗兵來掠 殺其未渡者 翌日信返追句麗兵 捕殺數萬級(『三國遺事』「太宗春秋公」.)

살펴볼 수 있다.

①『삼국유사』 대사가 어느날 일찍이 상례를 벗어난 행동을 하며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보련다.”사람들은 모두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이때 태종 무열왕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이 대사가 아마 귀한 부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그 이익이 막대할 것이다.” 이때 요석궁에 과부 공주가 있었다. 왕은 궁리를 시켜 원효를 불러 오게 하였다. 궁리가 명을 받들어 원효를 찾아보니 이미 남산을 거쳐 문천교를 지나고 있었다. 원효는 궁리를 만나자 일부러 물속에 빠져 옷을 적셨다. 궁리는 원효를 요석궁으로 인도하여 옷을 말리고 그곳에서 머물고 가게 하였다. 공주는 과연 태기가 있어 설총을 낳았다.…(중략)…원효가 계울을 어겨 설총을 낳은 이후부터는 속인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小姓居士)라 불렀다.<sup>42)</sup>

## 7. 【교화】

### 1) 도상해석



이 탕화는 원효의 기이한 교화의 일화 가운데 하나인 척반구중 설화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상단부에는 선정에 든 원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나무소반을 멀리 던지는 원효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승려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sup>43)</sup>

### 2) 문헌기록

척관암 설화라고도 전하는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a)『송고승전』처음에 원효가 행적을 보인 것이 일정함이 없었으며,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에 고정됨이 없었다. 혹은 소반을 던져 대중을 구하기도 하고, 혹은 물을 뱉어 화재를 진압하기도

42) 師嘗一曰，風顛唱街云，誰許沒柯斧，我斫支天住 人皆未喻 時太宗聞之曰，此師殆欲得貴婦產賢子之謂爾 國有大賢 利莫大焉曉 時瑤石宮…(중략)…既失戒生聰，己後易俗服，自號小姓居士。(『三國遺事』「元曉不羈條」)

43) 척관암은 경남 양산군 불광산 장안사 산내 암자로서, 원효스님이 널판자를 중국 종남산 운제사(終南山 雲題寺)로 날려 보낸 곳이다. 이때, 운제사 대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웬 널판자가 동쪽하늘에 떠 있다.” 소리치니, 대중은 기이하게 여겨서 널판자를 따라 절 밖으로 나왔다. 순간, 절이 무너져서 치어 죽을 천명이 구원 되었다. 그들이 ‘해동원효척판구중(海東元曉擲板救衆)’이란 글씨가 씌인 널판자를 따라 오고 온 곳이 양산군 천성산. 이곳에 절을 세워, 내원암(內院庵)(지금 內院寺)이라 부르고, 정진하여 성인을 이루었다 하여 천성산(千聖山)이라 산이름 하였다. 이곳 너른 들을 ‘화엄밭’이라 이름한 것은 주춧돌 같은 돌덩이 천여개가 마치 좌석인 양 널려 있어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차려 화엄경을 설하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원효스님-현대불교미디어센터 <http://hompy.buddhapia.com/homepy/wonhyo/>(2010.09.01)참고.

하였으며, 혹은 여러 곳에서 형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모든 곳에 입멸할 것을 고하기도 하였으니 배도(盃度)나 지공(誌公)의 무리와 같았다.<sup>44)</sup>

(b)『擲盤臺事蹟記』위성 남쪽 묘향 북쪽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척반대이다. 그 이름은 신라의 도인 원효로부터 지어졌다. 원효가 여기서 도를 깨치고 도를 즐긴 것이다. 하루는 지혜의 눈으로 보니 중국에 큰 불교행사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스님이 천벌을 받게 되어있어 땅이 무너지게 되었다. 원효가 소반을 던져 그 절의 공중에 떠다니다가 멀리 날아갔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그 소반을 따라 나왔다 그때 땅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다. 판자가 멈추므로 그것을 살펴보니 소반 안에는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는 8글자가 쓰여 있었다. 따라서 소반을 던진 그곳이라 하여 척반대라 한 것이다.<sup>45)</sup>

## 8. 【열반】

### 1) 도상해석

이 마지막 탱화는 저술과 열반에 관한 내용이다. 상단 부는 원효가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중앙 부분은 승려들을 모아 놓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원효가 만년에 경론을 저술한 이후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단 부분은 열반하여 부처의 형상으로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 2) 문헌기록

원효가 『화엄경소』·「십문화쟁론」 등을 저술 한 것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sup>46)</sup>

44) 初曉示跡無恒，化人不定，或擲盤而救衆。或喂水而撲焚，或數處現形，或六方告滅，亦盃渡誌公之倫歟。(『宋高僧傳』「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45) 威成之南 妙香之北 有一精舍 厥號擲盤臺安名者誰 新羅道人元曉 悟道於斯 樂道於斯 一日慧眼觀之 中原有大作佛事 九僧九俗參證師天罰地陷 緣此會衆咸沒之際 有一盤自無何以來 或高或低 揭道場而去會衆咸言奇怪 而隨出後地陷 證師被陷沒之禍盤止視之 則盤中有海東元曉擲盤救衆八字 所以扁額也。『擲盤臺事蹟 記』 판자를 던진 곳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운자 희근이 씀. 『朝鮮寺刹使料』하권에 실려있다.

46) 원효의 만년 저술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화엄경소』에 대하여서는 원효가 『화엄경소』를 저술 하던 중 절필 혹은 완전히 정리하고 백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원효 최후 저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스토리 배열 구조상 『금강삼매경론』이 나중의 저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견해와 『삼국유사』의 내용상 흐름에 따르면, 이 마지막 탱화의 저술은 원효가 무애행으로 대중화에 힘쓰던 도중 『금강삼매경』의 주석을 부탁받고 확승으로 복귀하여 주석을 쓰고 강의를 마친 뒤 혈사로 돌아가 입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탱화의 다섯 번째 <설법>에서 소의 뿔에 벼루를 두고 소를 타고 있는 모습은 『금강삼매경론』의 저술 내용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 여덟 번째 탱화의 장면은 다른 논서의 저술 장면을

(a)『삼국유사』 “원효는 일찍이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지었는데, 제40<회향품(廻向品)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꺾었다. 또 송사 때문에 몸을 일백 그루의 소나무로 나누니 모두 이를 위계(位階)의 초지(初地)<sup>47)</sup>라 하였다.”

(b)『서당화상비』 “비유하자면 청색과 쪽 풀은 본체가 같고 얼음과 물은 근원이 같은데, 거울이 수많은 형상을 받아들이고 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다 (마멸) 융통하여 서술하고는 그 이름을 『십문화쟁론(十門和爭論)』이라 하였다.<sup>48)</sup>”

한편 원효의 열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d)『삼국유사』 그가 입적하자 설총이 유해를 잘게 부수어 참 얼굴을 빚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하고 사모하여 슬픔의 뜻을 표하였다. 그때 설총이 옆에서 예를 올리자 소상이 갑자기 돌아보았는데, 지금까지도 돌아본 채 그대로 있다.<sup>49)</sup>

#### IV. 문헌기록과의 대조와 탕화의 특징-결론을 곁하여

「원효팔상탱화」는 한 폭에 여러 주제의 원효관련 설화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효의 연보에 따른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각 장마다의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되고 알려져 있는 원효와 관련된 대표 설화의 내용들을 도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분하자면 <①탄생 ②출가(出家) ③득도(得道) ④무애(無碍) ⑤설법(說法) ⑥요석과 인연 ⑦교화(禪定) ⑧열반(涅槃)><sup>50)</sup>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각 탕화의 표현에서 주목할 것은 원효의 전기를 기록한 일반적인 『삼국유사』·『송고승전』, 비문인 서당화상비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만, 세부적인 묘사는 기록들과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원효의 <탄생> 장면은 기본적으로는 『삼국유사』의 내용과 차이가 없지만, 모친과 부친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좌측에서 합창한 채 원효를 향해 앉아있는 모습은 기록에는 없는 내용으로 이는 제작자의 상상이 가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원효의 <무애무> 장면은 『삼국유사』와 『파한집』 등에 기록된 ‘박’을 들고 춤추었다는 내용과는 달리, 원효가 ‘호로박’을 허리에 차고 ‘목탁’과 ‘염주’를 양 손에 들고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천존만락을 다니며 시중잡배와 어울려 가무하였다는 기록과 달리 원효는 중앙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7) 보살이 수행하는 52계위 가운데 10지위의 첫단계인 환락지(歡樂地)

48) 靑藍共體 氷水同源 鏡納萬形水分 通融聊爲序術名 曰 十門和爭論

49) 入寂. 聰碎遺骸, 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幕終天之志. 聰時旁禮. 像忽廻顧, 至今猶顧矣. 曉嘗所居穴寺旁. 有聰家之墟云. 『三國遺事』 「元曉不羈條」

50) 이와 같은 구분은 신문 『현대불교』 제581호의 「체석사 팔상탱화 점안」의 도상과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주지 적연은 “원효의 일대기에 맞추어서 탄생·출가·득도·무애·설법·요석공주와의 인연·선정·열반의 8가지 그림을 구상해 탕화로 표현했다.”고 말한다.

에서 홀로 관객들에게 둘러싸인 채 춤을 추고 있으며, 이는 원효라는 인물과 무애무를 더욱 중추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원효의 <득도> 장면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구역질을 하며 득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국측 사료에는 기록된 바가 없고 중국측 사료인 『임간록』에 기록된 것이다. 원효의 오도와 관련된 여러 버전의 내용은 중국의 『송고승전』·『임간록』·『종경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문헌마다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sup>51)</sup> 이 제석사의 탕화는 『임간록』의 내용에 근거하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sup>52)</sup>

넷째, <요석공주와의 만남>이 궁안에서의 만찬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원효관련 사료에서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장면은 상상을 가미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남(상단)과 헤어지는 장면(하단)까지 묘사되어 있다. 실제 기록에는 단지 『삼국유사』에서 “원효를 요석공으로 인도하여 옷을 말리고 그곳에서 머물고 가게 하였다.”는 간략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과 탕화의 차이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1) 『종경록』(961년)에는 의상과 당유학길 중 어느 황폐한 무덤에서 고인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먹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체 썩은 물[=死屍之汁]이었다. 『송고승전』에는 길옆 땅막 사이에서(무덤의 해골 옆)갔으며 물을 마셨다는 얘기는 없다. 『임간록』에는 원효 혼자 당나라 어느 산길을 산책하다가 무덤사이에서 잠을 잤고 동굴 속의 고인물을 먹고 나중에 그 손으로 움켜쥐고 마신 물이 해골임을 알게 되었다.

52) 참고로, 아래 좌측 그림은 일본 고산사(高山寺)소장 묘에(明惠)의 『화엄종조사회권(華嚴宗祖師繪傳)』 묘에가 의상와 원효의 일대기를 장장 80m짜리 장축(長軸)의 두루마리 그림으로 그린 6권짜리 에마게(繪卷) 『의상회(義相繪)』의 원효와 의상의 유학길에 잠을 자는 장면이다. 여기서의 괴물(괴수)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원효와 의상이 잠든 사이 주변을 지켜보며 서성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원효의 오도와 관련된 설화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되고 윤색되어 전해짐을 파악할 수 있다. 『경북일보』 「日 국보 ‘화엄연기’ 두루마리 그림 해설」 (2010.09.29)참고: 고영섭(1997), 『원효』, 한길사, p.83. 참고.

[도상2] 『화엄종조사회전』의 <오도>



[도상3] <제석사 탕화>의 해골물 오도



[표 2] 문헌과 탕화의 차이

	문헌 기록	탕화 내용
무예	문헌: 『삼국유사』·『파한집』 내용: 광대들이 들고 놀던 <박>을 들고 천존만락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춤.	문헌기록과 차이가 있음 내용: <호로박>을 허리에 차고, 손에 <목탁 · 염주>를 들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혼 자> 춤을 춤.
독도	문헌: 『종경록』·『송고승전』 내용: 해골물을 마셨다는 기록 없음.	문헌: 『임간록』 근거. 내용: 무덤 앞에서 해골물을 마심.
요석	문헌: 『삼국유사』 내용: 요석궁에서 지냈다고만 기록됨	문헌: 『삼국유사』를 토대로 윤색됨. 내용: 궁에서 요석과 만찬하는 모습이 묘사됨

이 외에도 원효의 출가 시 삭발하는 장면은 실제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며, 김유신의 암호난독에 원효가 자문을 내리는 것과, 『화엄경소』·『금강삼매경론』 저술과 척관구중설화 등의 구체적인 장면은 제작자의 상상이 가미되어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은 탕화를 제작한 자의 의도와 지역성 사찰의 배경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탕화의 주제를 각각 분석하여 보는 것은 문헌에 기록된 원효상(元曉像)과 사찰의 성격과 현재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의도를 배경으로 한 원효상의 대조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상이 상징·암시하는 바가 여러 가지 조건하에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재고해 볼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비록 이 탕화에서 원효의 전기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탕화 구성의 순서가 기본적으로 원효의 생애 순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엄밀하다고는 확정할 수 없다<sup>53)</sup>. 그리고 제석사 탕화만의 독창적인 특징이나 두드러진 표현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인물을 팔상탱화로 작성한 예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원효팔상탱화는 그 자료자체만으로도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원효에 대한 이미지(元曉像)가 반드시 고정된 형식의 문헌기록만이 전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중들에게 그 내용의 본질을 전할 수 있다면 제석사의 원효 팔상탱화처럼 윤색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게 하고 원효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통의 길을 열 수도 있는 것이다.

53) 특히 『금강삼매경론』의 저술 장면이 문헌기록과는 달리 만년이 아닌 요석과의 만남 이전에 묘사된 것 등을 보아서도 탕화의 구성이 기존 문헌에 기록된 원효의 행장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만은 아님을 파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三國遺事』

『宋高僧傳』

「誓幢和上碑」

『大覺國師文集』

『林間錄』

『破閑集』

권상로(1979), 『한국사찰전서』 하, 동국대학교출판부, 1021면.

김상현(1993), 「자료해설:도판해설(圖版解說);원효진영에 관하여」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김영태(1980), 「진기와 설화를 통해 본 원효연구」, 『불교학보』제17집,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金鍾國(1993),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 원효」, 경산문화원.

손지혜(2009), 『원효 무애사상의 예술적 구현-무애무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34.

이봉춘(1996), 「원효 탄생지에 대한 고찰」, 『원효연구』, 원효학연구원, p.135.

李鍾大(1991), 「元曉大師出生地와 대사가 창건한 金堂寺」, 『慈仁의 脈』, 자인.

장희옥(1996), 『자 떠나자 원효성사 찾아서』, 시공사.

조춘호(1998), 『원효불기조의 현장론적 연구』 『구비문학연구』제6집, 한국구비문학.

『현대불교』제581호.

원효스님-현대불교미디어센터<http://hompy.buddhapia.com/homepy/wonhyo>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제석사, 원효상, 원효팔상탱화, 현대적 재현. Jeseok Temple, Paintings of Eight Stages in Wonhyo's Life, the image of Wonhyo, the contemporary representation.
<p style="text-align: center;"><b>A contemporary representation the image of Wonhyo by Paintings of Eight Stages of Jeseok Temple</b></p> <p style="text-align: right;">Choi, Jae-Mok · Son, Ji-Hye · Kim, Eun-Ryeong</p> <p>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Wonhyo Palsang Paintings, or the Paintings of Eight Stages in Wonhyo's Life, which was hanging on the wall of Jeseok Temple,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contemporary implications and image of Wonhyo. Wonhyo was one of the most eminent and influential scholar-monks in Silla Era, and Jeseok Temple has been known as the birthplace of Wonhyo.</p> <p>Jeseok Temple, located in Gyeongsan city, Gyeongsangbuk-do, was still the talk of the town as the birthplace of Wonhyo. Accordingly, for the first time in Buddhist history in Korea, Jeseok Temple constructed the Wonhyo Sungsa Jun, or the Temple for Great Religious Sage of Wonhyo, and has held Daryeje, or a religious service, every year to look back upon the memory of Wonhyo with reverence and affection.</p> <p>There have been little or no studies repor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eseok Temple and Wonhyo. However, Jeseok Temple is the only one in Korea where Wonhyo was enshrined and the Buddhist picture of Wonhyo was hung on the wall of the temple. Bibliography of Wonhyo depicted in the Wonhyo Palsang Paintings was worth reviewing for the contemporary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of his modern image.</p> <p>Wonhyo Palsang Paintings consisted of eight tales related to Wonhyo's life with different topics in one picture that were listed in chronological order. Iconographical topics of the painting included the following eight tales: Birth of Wonhyo,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transcendence, no hindrance, sermon, distinguishment between good and bad as well as destiny, enlightenment, and nirvana. This study proceeded to explain the contents of each picture with the relevant literature and documents.</p> <p>The pictures in the Wonhyo Palsang Paintings were depicted based on generally accepted and well-known tales about Wonhyo, rather than based on thorough historical research and evidence. However, since there have been no Buddhist paintings about the most eminent scholar-monk in Korean history, Wonhyo Palsang Paintings had a great deal of importance and significance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contemporary representation.</p>	
필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최재목 · 손지혜 · 김은령 (한자): 崔在穆 · 孫知慧 · 金銀令 (영문): Choi, Jae-Mok · Son, Ji-Hye · Kim, Eun-Ryeong 국문제목: 원효상(元曉像)의 현대적 재현-제석사의 탱화를 중심으로 영문제목: A contemporary representation the image of Wonhyo by Paintings of Eight Stages of Jeseok Temple 소속: 영남대 철학과 교수 · 동대학 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 동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E-mail: <a href="mailto:choi@ynu.ac.kr">choi@ynu.ac.kr</a>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2010. 11. 16. 심사일 : 2010. 11. 24. 심사완료일 : 2010. 12. 03.